



하루에 하나



2026.6.25

JUN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달러 환율

1,544.40원 (+10.90원)

KOSPI

8,471.02 (+267.18, +3.26%)

KOSDAQ

909.31 (+17.79, +2.00%)

국고채 10년 금리

4.171 (0.000%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Special Report

Global ETF SpaceX, and Next? [장치영]

기업분석

네오팜 치고 나가는 수출 [박중대]

시지메드텍 IMM이 사라웠한 동종진짜 ECM CDMO 기업 [김다혜]

산업분석

인터넷/게임 과대 낙폭 구간, Top Pick 펀더멘탈 점검 [이준호]

글로벌리서치

글로벌 전력기기/에너지 트럼프의 울며 겨자(동력) 먹기 [김시현]

미국 건설 ROAD법 상하원 최종 합의안 통과 [하민호]

단기투자유망종목

SK하이닉스, 삼성물산, 오리온

2026년 6월 24일 | Global Asset Research

Global ETF

Compliance Notice

본 조서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SpaceX, and Next?

IPO 단계별 ETF 가이드

IPO 시장에서도 확인되는 AI 영향력

AI 투자 사이클의 영향력이 유통시장을 넘어 발행시장까지 확장되고 있다. SpaceX, Anthropic, OpenAI의 합산 공모 규모는 약 2,000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2021년 연간 기록을 상회할 전망이다. 세 기업 모두 조달 자금의 사용 우선순위를 AI 인프라에 두고 있다. 시장에서는 초대형 IPO로 인한 수급 부담을 우려하고 있지만, 조달 자금이 AI 인프라로 투입되는 규모 그리고 상장 후 공개될 해당 기업들의 실적이 AI 투자 심리 전반에 미칠 영향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상장일만 기다리면 놓칠 수 있는 기회들

메가 IPO의 영향력은 여타 IPO와 달리 상장 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상장 준비 단계에서는 지분 보유 종목과 Peer 종목으로 투자 수요가 집중되는 흐름이 관찰된다. 지분 보유 기업 중에서는 시가총액 대비 지분 가치 비중이 높은 종목일수록 주가 탄력성이 높게 나타난다. Peer 종목은 대체 투자처로 선택받으며 상승세를 보이지만, 상장일에 가까워질수록 차익 실현 압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상장 이후에는 지수 편입과 락업 해제 등 수급 이벤트가 순차적으로 발생한다. 이처럼 시기별로 주목해야 할 대상과 대응 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SpaceX의 사례는 Anthropic과 OpenAI의 IPO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의미한 기준이 될 수 있다.

ETF를 통한 IPO 이벤트 투자 전략

SpaceX는 현재 나스닥100 지수 편입과 락업 해제 등의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관련하여 우주 테마 ETF는 우주 테마 모멘텀을 함께 누릴 수 있지만 SpaceX를 높은 비중으로 편입하고 있어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구조다. 나스닥100 추종 ETF는 단계적으로 SpaceX 비중을 올려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나스닥, 나스닥100 지수 추종 액티브 ETF들이 지수 편입에 앞서 SpaceX를 담고 있다.

AI는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다양한 종목군과 ETF가 존재하여 상장 기대감이 반영되는 경로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 현 단계에서는 지분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 중심의 접근이 유효하다는 판단이다(Anthropic: KODEX 코리아소버린AI/TIGER 일본니케이225/ACE 일본NIKKEI225, OpenAI: KODEX 미국시테크TOP10/TIGER 미국시빅테크10AI 테마의 경우 IPO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경로로 기대감이 반영되는지에 따라 선택지가 좁혀질 수 있다. 한편 세 기업 모두 조달 자금의 상당 부분을 AI 인프라에 투입할 계획인 만큼, 반도체,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관련 ETF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alyst 장치영 chiyoung.jang@hanafn.com

2026년 06월 25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Not Ra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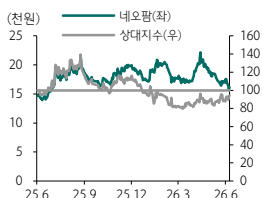
현재주가(6.24) 16,14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909.31
52주 최고/최저(원)	22,150/13,940
시가총액(십억원)	258.7
시가총액비중(%)	0.05
발행주식수(천주)	16,028.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55.9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0
외국인지분율(%)	25.81
주요주주 지분율(%)	
잇츠한불 외 3인	42.34
FL LIMITED 외 5인	9.40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51	170
영업이익(십억원)	32	36
순이익(십억원)	N/A	N/A
EPS(원)	1,726	1,955
BPS(원)	N/A	N/A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85	97	119	132
영업이익	21	25	25	29
세전이익	23	29	30	32
순이익	17	23	23	28
EPS	1,062	1,448	1,439	1,736
증감율	(3.9)	36.3	(0.6)	20.6
PER	9.3	9.1	8.2	10.6
PBR	1.1	1.3	1.1	1.5
EV/EBITDA	1.9	3.8	2.3	4.8
ROE	12.0	14.5	13.0	14.2
BPS	9,040	10,151	11,203	12,356
DPS	700	750	600	750



Analyst 박중대 @hanafn.com

네오팜 (092730)

치고 나가는 수출

2분기 매출 YoY 31% 성장 예상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31%, 29% 신장한 419억원과 90억원 수준이 가능할 전망이다. 분기 최초로 400억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아토팜/제로이드/리얼베리어 중심으로 신규 채널 및 수출 매출이 큰 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토팜은 아마존 채널 높은 신장세로 수출이 YoY 50% 증가하고 있다. 제로이드는 올리브영 매출이 YoY 70%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미 국내 병원 의류기기 시장에서 검증된 높은 네임밸류가 일반 라인으로 확산하고 있다. 리얼베리어 역시 YoY 33% 고신장이 예상된다. 신규 셀럽 광고를 시작하면서 국내 올리브영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일본 큐텐 메가와라 행사도 성과가 좋았다. 다이소 등 직거래 채널 매출이 YoY 50% 증가 중이다.

마케팅비 확대 부담 매출 증가로 극복

경영진의 성장 전략이 좀더 공격적으로 바뀌었다. K컬처/K뷰티 글로벌 확장세에 편승하여, 마케팅비를 쓰더라도 좀더 외형 성장에 초점을 두겠다는 방향이다. 2분기 마케팅비는 YoY 90% 큰 폭 증가하면서, 매출 비중 14%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매출 증가로 인한 레버리지 효과로 영업이익률은 21.5% 수준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한다. 높은 제품력과 효율적인 마케팅비 집행 때문이다.

하반기 YoY 20% 이상 지속 성장 가능

당분간 아토팜/제로이드/리얼베리어 중심 YoY 20% 매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 아토팜은 아마존 베이비케어 카테고리에서 1~2위를 할 만큼 인지도를 높이고 있고, 틱톡 채널도 론칭했다. 러시아/CIS 지역에서 주문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 역시 거래처가 안정화되면서 다양한 채널에 접근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채널로는 오프라인, 지역으로는 유럽 진출 가능성이 크게 열려 있다. 무엇보다 i) 국내 최대 베이비 케어 브랜드로 검증이 끝났고, ii) 최근 글로벌 화장품 트렌드를 더마 카테고리가 선도하고 있다는 점도 우호적이다. 마케팅과 시간의 문제다. 현재 주가는 7.9배 저평가 상태다.

2026년 06월 25일 | 기업분석_스몰캡_Report

Not Ra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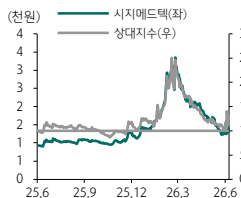
현재주가(6.24) 1,333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909.31
52주 최고/최저(원)	3,350/900
시가총액(십억원)	137.6
시가총액비중(%)	0.03
발행주식수(천주)	103,259.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999.9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3.4
외국인지분율(%)	3.07
주요주주 지분율(%)	
시지바이오	40.41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N/A	N/A
영업이익(십억원)	N/A	N/A
순이익(십억원)	N/A	N/A
EPS(원)	N/A	N/A
BPS(원)	N/A	N/A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41	35	35	47
영업이익	0	(2)	(1)	4
세전이익	(18)	1	0	3
순이익	(19)	2	0	7
EPS	(278)	21	1	63
증감율	적지	폭전	(95.2)	6,200.0
PER	(8.5)	112.4	1,008.0	18.5
PBR	3.2	3.1	1.2	1.3
EV/EBITDA	31.9	357.9	126.8	18.8
ROE	(32.1)	2.7	0.1	6.9
BPS	732	763	844	910
DPS	0	0	0	0



Analyst 김다혜 kim.dahae@hanafn.com

시지메드텍 (056090)**IMM이 사라웃한 동종진피 ECM CDMO 기업****IMM이 1.1조원 밸류로 매입하는 시지바이오의 자회사 시지메드텍**

지난 6월 18일 언론을 통해 IMM PE가 시지바이오 지분 51%를 5,61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 매매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시지메드텍의 주가는 19일 30% 상승했다. 시지메드텍은 시지바이오의 자회사로, 척추 및 덴탈 정형외과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이다. IMM PE에서는 오랜 기간 인체조직이식재 사업을 영위해왔고, J&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을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갖춘 시지바이오가 성장성, 수익성이 높은 동종진피 ECM 스킨부스터 시장에 진출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지분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시지바이오는 치열한 동종진피 ECM 스킨부스터 시장에서 CDMO 사업을 통해 유통과 마케팅 투자 대신 B2B 계약을 통해 생산과 품질에만 집중하는 이원화 구조를 선택했다.

동종진피 ECM 스킨부스터 CDMO 사업, B2B 공급으로 효율 극대화

시지메드텍은 6월 15일 코오롱제약과 동종진피 ECM 스킨부스터 CDMO 계약을 체결했다. 주요 동종진피 ECM 제조사들이 자사 브랜드로 제품을 판매하고 유통사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 것과 다른 행보다. 시지메드텍은 동종진피 ECM 스킨부스터를 취급하려는 기업에게 CDMO 형태로 제품을 공급해 치열한 브랜드 간 경쟁과 무관하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쪽을 선택했다. 이는 동종진피 ECM 스킨부스터의 높은 상품성과 미래 CAPA에 대한 자신감에 기반한 전략이다. 후발주자로서 자체 브랜드로 뒤늦게 경쟁에 참여하기보다는 모회사 시지바이오의 1.4만 평 생산시설과 연계해 성장성과 마진이 높은 동종진피 ECM 제품을 CDMO로 B2B 공급을 하는 것이다. 시지메드텍은 코오롱제약 외에도 현재 동종진피 ECM CDMO 공급을 논의하고 있는 2~3개 업체와 계약 체결을 목표로 협의 중에 있다.

AATB 자격과 글로벌 의료기기 공급 경험으로 해외 빅마켓 진출까지 기대

미국 조직은행협회 인증(AATB)과 해외 공급 경험을 근거로 시지메드텍을 기존 Top 2 기업과 함께 동종진피 ECM 스킨부스터의 해외 진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기업으로 판단한다. 시지메드텍의 모회사 시지바이오는 엘앤씨바이오, 한스바이오메드와 더불어 인체조직이식재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기업으로, 미국 조직은행협회에서 까다로운 기증자 선별과 가공 표준을 충족한 기업에게 주는 AATB 인증을 받았다. 또한 시지바이오는 골대체재 노보시스 공급 계약을 드퓨신테스(J&)에서 분사한 정형외과 사업부)와 체결해 미국을 비롯한 해외로 수출한 경험이 있으며, 시지메드텍도 모회사를 통해 드퓨신테스와의 정형외과 제품 거래를 시작했다. 신뢰성 있는 AATB인증과 글로벌 기업과의 해외 진출 경험을 가진 시지메드텍도 동종진피 ECM 해외 진출에 있어서 결코 뒤쳐지지 않을 것이다. 시지메드텍의 2026년 매출은 596억원(YoY+26%), 영업이익은 29억원(YoY-24%, 영업이익률 5%) 전망한다. 동종진피 ECM CDMO 사업은 내년에 추가 고객사를 유치하며 올해 매출의 3배 이상 성장 기대된다.

2026년 6월 25일 | 산업분석_Update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6월 24일

NAVER (035420)

BUY | TP 400,000원 | CP 199,400원

크래프톤 (259960)

BUY | TP 460,000원 | CP 220,000원

NC (036570)

BUY | TP 420,000원 | CP 243,500원

인터넷/게임

과대 낙폭 구간, Top Pick 펀더멘탈 점검

디레이팅 속에서 기회 찾기

인터넷/게임 섹터 Top Pick으로 제시하고 있는 NAVER, 크래프톤, NC가 최근 과도한 하락으로 디레이팅이 심화되었다. 12MF 기준 P/E는 NAVER 14.7배, 크래프톤 8.6배, NC 10.8배다. 해당 기업들 모두 본업이 견조한 가운데 신사업 진출 역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중이다. NAVER는 네오클라우드 사업 진출을 시작했으며 크래프톤, NC는 8월 게임스컴에서 신작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고 국방 AI 진출도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펀더멘탈에 이상이 없고 오히려 기업들이 좋아지는 구간이지만 주가는 하락했다. 분명한 매수 기회라 판단한다.

NAVER: 하반기 AI 팩토리화 두나무 합병

NAVER는 젠슨황 방한으로 인한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네오클라우드 신사업 진출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계약이 나오지 않은 영향으로 해석한다. 단기 주가의 관건은 초기 200MW에 대한 고객사 및 장기수주계약의 확인이다. 지난 컨퍼런스콜에서 단일 고객이 200MW 이상의 수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하이퍼스케일러 혹은 LLM 사업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구체화에 따라 기업 가치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의 합병일(9월 30일)도 다가오고 있다. 6월 22일부터 여당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었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개화는 글로벌에서 이미 시작되었기에 제도화만 된다면 국내에서도 주요 플레이어들을 중심으로 산업 형성, 글로벌 진출을 기대할 수 있다. 2025년 6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이슈가 되었을 당시에는 수혜 강도와 관계없이 무차별적인 상승을 시현했으나 이번 하반기는 다른 양상을 예상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컨소시엄을 이룰 수 있는 파트너들을 이미 확보했고,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에 강점이 있어 최대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은 NAVER다.

크래프톤, NC: 프리뷰 시점을 기점으로 추정치 상향 기대, 게임스컴 신작 정보 공개 예상

크래프톤과 NC는 2분기 프리뷰 시즌을 기점으로 연간, 2027년의 추정치 상향이 기대된다. 양사의 컨센서스는 하나증권의 기존 추정치 대비 낮게 형성되어 있다. 기존작들의 추이를 반영하여 7월 초 프리뷰 시즌을 통해 추정치를 상향할 예정이다. 크래프톤은 8월 게임스컴에서 [NO LAW], [프로젝트 제타], [에이지 트루스터], [타래: 언바운드]와 PUBG 스튜디오 미공개 신작까지 총 5개의 신작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PUBG 스튜디오의 신작은 전혀 공개된 바가 없기에 개발 정도에 따라 기대감 충분히 받을 수 있다. NC는 [아이온2 글로벌]에 대한 본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함과 동시에 [호라이즌 스틸 프론티어즈]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온2 글로벌]은 9월 출시 예정이며 [호라이즌 스틸 프론티어즈]는 2027년 1분기 출시 예정이다. 2027년까지 증익 가시성이 높기에 매수해야 할 시점이다.



Analyst 이준호 junholee95@hanafn.com

산업 Issue

2026년 6월 24일 | 글로벌 리서치

글로벌 전력기기/에너지

트럼프의 울며 겨자(풍력) 먹기

‘풍력발전 금지 행정명령 무효’ 판결에 대한 항소 신청 철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풍력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으나 최근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 과거 2000년대 초반부터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던 스코틀랜드 앞바다에 해상 풍력단지가 추진되자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 풍력을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2기 취임 첫날인 2025년 1월, 연방 영해 내의 신규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무기한 금지했으며 기존 프로젝트에도 작업 중단 행정명령을 내렸다. 2025년 12월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며 트럼프는 항소했으나, 6월 10일 다시 항소를 자진취하하게 된다. 트럼프의 개인적 선호에 따라 특정 에너지원을 편애할 수 없는 상황에 도래했으며 최근 글로벌 에너지 기조인 Energy Expansion을 증명하는 사례가 되었다.

미국에서 풍력의 입지

2025년 미국은 풍력 발전으로 464,000GWh(YoY +3%)의 전력을 생산했으며 이는 전체 전력 생산 비중의 약 10%에 해당한다. 다만 지리적 특성의 차이로 해상 풍력이 발달한 유럽과 달리 미국은 대부분이 텍사스, 뉴멕시코 등 내륙 지역의 육상풍력이며 해상풍력의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Coastal Virginia Offshore Wind(CVOW) 프로젝트는 미국 최대 규모(2.6GW)의 해상풍력 프로젝트이며 총 176기의 지멘스가메사 14.7MW급 터빈을 사용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CVOW 프로젝트에 전면 공사 중단을 명령한 이후 개발사인 도미니언 에너지는 연방법원에 행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도미니언 에너지의 손을 들어주었고 2027년 초 완공을 앞두고 있다.

태양광은 Section 232가 예상보다 늦어져

트럼프가 신재생 내에서 풍력보다 선호했던 태양광의 경우 Section 232가 이르면 6월 중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으나 시점이 최근 시점이 8월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비중국 밸류체인인 가격 상승이라는 투자포인트는 여전히 유효하나 단기적センチ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풍력은 OBBBA 안에서 태양광보다도 찬밥 신세였다. 45X 태양광 부품의 세액공제는 2030년까지 완만히 감소하는 반면 풍력 터빈과 해상풍력 부품은 2027년부터 전면 중단했다. 따라서 이번 트럼프의 항소 취하는 신재생 섹터 내에서 주목해볼 만한 시각 변동으로 판단한다.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2026년 6월 25일 | 글로벌 산업분석

미국

미국 건설

ROAD법 상하원 최종 합의안 통과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주택법안

미국 최대 주택공급 법안으로 평가받는 '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ROAD법)'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다. 상원은 지난 6월 22일 85대 5로 법안을 가결했고, 하원은 지난 5월 20일 수정안을 396대 13, 6월 23일 최종 합의안을 358대 32로 재통과시켰다. 이로써 법안이 최초 발의된 지 약 3개월 만에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양당이 주택 affordability 문제를 공급 확대 중심으로 풀겠다는 데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따라서 이제 주택 시장은 최종 입법 통과보다 향후 HUD-재무부 등의 관계 부처가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 지 중요해졌다.

대형 기관 제제는 여전히 유지

법안의 핵심은 주택 공급을 제약해온 각종 규제 비용을 낮추고, 중저가 및 저렴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보강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조닝 및 인허가 절차의 표준화와 간소화, 환경심사 부담 완화, 공실·유휴 건물의 주거용 전환, 노후 주택 개보수 지원, 제조·모듈러 주택 규제 완화, 농촌 및 저소득층 대상 주택 프로그램 재정비가 포함됐다. 신규 착공 확대뿐 아니라 기존 재고 활용을 통해 공급 부족을 완화하겠다는 목적이다. 단기 경기 부양책이라기보다 중장기적 공급 개선책이다. 다만, 초기 상원안에 포함됐던 BTR 단독주택의 7년 내 매각 의무는 업계 반발과 하원 협상 과정에서 삭제됐지만, 대형 기관의 단독주택 추가 매입 제한 조항은 유지된 것이 특이사항이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추가 규제 가능성

중간선거를 전후해 트럼프 행정부가 주거비·생활비 안정을 핵심 선거 키워드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집값 억제 효과가 단기간에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임대료 상한제나 세입자 보호 등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Invitation Homes(INVH)와 American Homes 4 Rent(AMH) 등은 기관 매입 제한의 직접적인 타겟이자 중간선거를 앞두고 추가 규제 논의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가장 먼저 반응하는 종목인 만큼, 시행령 세부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는 주택 리츠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Analyst 하민호 minhoha@hanafn.com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K하이닉스 (000660.KS)	6/22	2,764,000	2,580,000	-6.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1Q26 Review 매출액 52.6조원(YoY +198.0%), 영업이익 37.6조원(YoY +405.0%) 기록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삼성물산 (028260.KS)	6/22	491,500	481,500	-2.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 수주 5조원·수주잔고 31.7조원으로 하이테크/데이터센터 중심 수주 모멘텀 지속 원전/SMR 수주 추진, 태양광 파이프라인 19GW 및 2030년 미국 5GW 운영자산 목표
오리온 (272260.KS)	6/22	134,000	125,400	-6.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베트남·러시아 매출 큰 폭으로 성장하며 해외 법인 중심의 실적 개선세 뚜렷 중국에서 고성장 중인 간식 및 온라인 채널에서의 보폭 확대 고무적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6.91%	-0.86%p	+71.36%	-5.95%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생명 (032830.KS)	6/22	385,500	433,000	12.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 판매 확대와 신계약 CSM 증가로 보험 본업의 이익 체력 개선 삼성전자 배당수익 및 자회사 연결 손익 증가로 투자손익 크게 개선
신세계 (004170.KS)	6/22	695,000	685,000	-1.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화점 본업의 외국인 매출 확대와 리뉴얼·팝업 효과로 매출 및 영업이익 개선 흐름 지속 면세점 흑자 전환과 신세계인터내셔널 등 자회사 수익성 회복으로 실적 개선 가시성 상승
오리온 (272260.KS)	6/22	135,500	125,400	-7.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베트남·러시아 매출 큰 폭으로 성장하며 해외 법인 중심의 실적 개선세 뚜렷 중국에서 고성장 중인 간식 및 온라인 채널에서의 보폭 확대 고무적
삼성전기 (009220.KS)	5/26	1,340,000	1,964,000	46.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서버 랙 전력밀도 상승과 800VDC 전력 인프라 도입으로 서버용 MLCC 탑재량 증가 타이트한 수급과 가격 조건 개선이 하반기 실적 레버리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SK하이닉스 (000660.KS)	4/13	1,027,000	2,580,000	15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1Q26 Review 매출액 52.6조원(YoY +198.0%), 영업이익 37.6조원(YoY +405.0%) 기록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삼성전자 (005930.KS)	4/1	167,200	340,500	103.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LG이노텍 (011070.KS)	4/1	293,500	957,000	226.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환율 + 롱테일효과 + 기판 수요 호조로 2Q26 호실적 기대감 존재 전장 및 서버용 FCBGA 가동을 상승에 따른 가파른 실적 개선 전망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2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28.62%	-27.09%p	+52.03%	-25.31%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증가기준 -10%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A반도체 (395160)	2026.02.27	29,560	57,550	9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KS)	2026.02.24	15,160	11,845	-2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에셋플러스 코리아 대장장이액티브 (442090.KS)	2026.02.24	25,365	34,650	3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방 산업의 경쟁 심화 속에서 부품, 장비, 소재 등 후방 산업(소부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장장이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 반도체, 방산,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 밸류체인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을 선별 편입. 국내 주요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과 맞물려 시장 지수 대비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대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17,975	3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622.05	8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엔비디아의 실적과 게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된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DRAM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2026.6.22	80.72	69.22	-1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혁명 및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컴퓨터 메모리 및 스토리지 밸류체인 관련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한 순수 메모리 테마 ETF 광범위한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기존 ETF와 달리, HBM(고대역폭메모리) 및 차세대 DRAM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제조사에만 집중 투자하여 차별화된 고성능 모멘텀 수혜 기대
AIRR (미국 중소형 산업재)	2026.6.22	133.25	129.52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매출 비중이 높은(75% 이상) 중소형 제조업 및 산업재 관련 기업들로 구성 되어 실질적인 미국 제조업 부흥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ETF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리쇼어링(제조업 본국 회귀) 현상 가속화와 관세 구조 변화 등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 하에서 실질적인 인프라 건설, 기계, 엔지니어링 밸류체인 수혜 기대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3.23	75.80	86.93	1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종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6.21	6.22	6.23	6.24	6.25	6.26	6.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로존 6월 소비자지대P (-18.0, 이전치 -1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6월 제조업 PMI (54.9, 이전치 54.5) 일본 6월 서비스업 PMI (51.8, 이전치 50.0) 유로권 6월 제조업 PMI (51.3, 이전치 51.6) 유로권 6월 서비스업 PMI (48.9, 이전치 47.7) 미국 6월 제조업 PMI (E 54.6, 이전치 55.1) 미국 6월 서비스업 PMI (E 51.0, 이전치 5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5월 신규주택매매 (E --, 이전치 -6.2%) 미국 5월 건축허가 F (E --, 이전치 -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5월 PCE (E 4.1%, 이전치 3.8%) 미국 5월 근원 PCE (E 3.4%, 이전치 3.3%) 미국 5월 내구재 주문 P (E -5.0%, 이전치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5월 공작기계 수출 (E --, 이전치 37.4%) 미국 6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E 50, 이전치 4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5월 산업생산 (E --, 이전치 24.7%)
6.28	6.29	6.30	7.1	7.2	7.3	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5월 광공업생산 (E --, 이전치 1.5%) 중국 6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0.0%) 중국 6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0.1%) 일본 5월 실업률 (E --, 이전치 2.5%) 미국 6월 CB 소비자지대 (E 93.5, 이전치 9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6월 수출 (E --, 이전치 53.2%) 한국 6월 수입 (E --, 이전치 20.8%) 미국 6월 ISM 지수 (E 54.0, 이전치 54.0) 유로권 6월 CPI (E --, 이전치 3.2) 유로권 6월 근원 CPI (E --, 이전치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6월 CPI (E --, 이전치 3.1%) 미국 6월 실업률 (E 4.3%, 이전치 4.3%) 유로권 5월 실업률 (E --, 이전치 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6월 레이팅독 제조업 PMI (E --, 이전치 51.8%) 중국 6월 레이팅독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4.4%)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